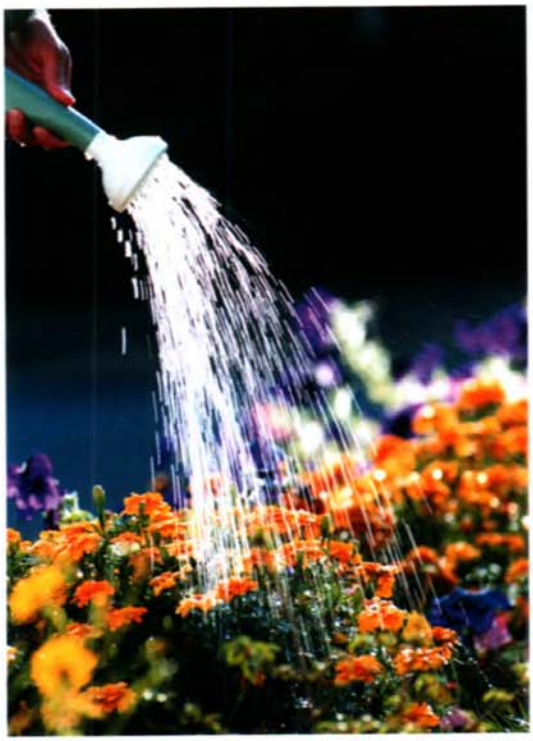

고층 아파트 지기(地氣) 부족, 화단 만들면 보충된다

풍수가 아파트 가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같은 한강변이라 하더라도 용산구 이촌동, 서빙고동, 강남구 압구정동 등 명당지역의 땅값이 그렇지 못한 지역보다 평당 110만 원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이제 집안의 인테리어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재물과 건강을 좌우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고 있다. 관련하여 풍수와 관련한 '복을 부르는 행운의 주택과 인테리어 배치법' 등을 연재한다.

글 · 고제희 (사단법인 대동풍수지리학회 이사장)

고층 아파트의 지자기 결핍증, 현대병의 원인?

현대에 들어 서울 도심에 속속 들어서는 초고층 아파트들은 조망권, 녹지 같은 환경 가치를 내세우며 대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선도적으로 바꿔가고 있다. 그러므로 '집을 주위보다 높게 지으면 재보(財寶)가 늘지 않는다' 란 예전의 통념은 어딘가로 사라지고, 첨단 보안시스템으로 사생활이 보호되는 초고층 아파트들이 여유 있는 계층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이 시대의 대표적 주거 공간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초고층 아파트는 호텔식 로비와 다양한 주민 공동 시설물을 건물 안에 갖추고, 또 고급 마감재를 사용해 초고가 프리미엄 아파트가 되었으며, 주민들 역시 "불편한 게 없어요. 평생 살고 싶죠"라고 말할 정도이다. 그렇지만 '집터의 지기는 손상되어서는 안 된다' 는 풍수적 관점에서 보면, 초고층 아파트는 지자기(地磁氣)가 허약하다는 결함이 있다. 우리 조상들은 집은 온전한 터에 짓고 살아야 재물이 모이고 훌륭한 인재도 태어난다고 믿어왔다.

지구는 자성을 띤 하나의 커다란 자석이고, 나침판이 남북을 가리키는 이유는 지구의 지자기(地磁氣) 때문이다. 이 지자기를 지표면에서 측정하면 0.5가우스(gauss) 가 발생하는데, 지상에서 4층 이상 올라간 건물에서 측정하면 0.25가우스 정도로 절반이 떨어진다. 고층의 콘크리트 건물에 사는 사람들은 지자기를 정상적으로 전달받기 어려운데, 현대인에게 나타나는 여러 성인병들은 지자기 결핍에 따른 증후군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1 초고층 아파트 전경 (초고층 아파트는 편리하지만, 고층으로 갈수록 지자기가 결핍된다.)

일본의 나카가와 씨는 신체에 대한 자성의 효과를 연구했는데, 「자계결핍증후와 자기치료」라는 논문에서 지자기 결핍이 어깨와 등, 목덜미의 뻣뻣함, 요통, 가슴의 통증, 두통, 불면증, 습관성 변비와 같은 질병과 관계가 깊다고 설명하였다. 또 키가 큰 나무도 20~25미터 정도까지만 자라고 그 이상은 자라지 못하는데 이 역시 지자기의 영향이 크다는 견해가 있다. 여기서 나무가 자라는 최대 높이가 지자기가 전달되는 높이라고 가정한다면,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아파트는 대략 6층 이하의 층이라고 볼 수 있다.

화분갈이와 화단조성으로 지자기 회복

풍수에서 지기(地氣)는 흙에 따라 흐르고 흙에 머문다고 본다. 이것은 만물을 탄생시키는 생기는 바로 물이고, 이 물은 흙의 입자 사이 공극에 가장 알맞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바위나 돌은 물을 품지 못해 만물을 탄생시키지 못하니 흉지이고, 물의 함량이 적은 모래 역시 길한 기운이 적어 '사상누각(沙上樓閣)'이란 말이 생겨났다.

사상누각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기초가 부실해 곧 쓰러진다는 뜻이 아니라, 사실은 모래는 풍수적 명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곳에 집을 짓고서는 큰 부자도, 큰 인물도 기대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흙만이 생기의 본체인 물을 적당량 품을 수 있고, 흙이 곧 생기 덩어리라는 등식이 성립한다. 따라서 집안에 흙을 많이 두는 것은 지자기를 키우는 좋은 방법이다.

아파트의 베란다에 들여놓은 화초들은 실내에서 자연의 청량감을 느끼게 해 준다. 그런데 문제는 화초가 심어진 화분 속의 흙인데, 대개는 썩은 흙이 담겨져 있다. 이것은 화초에겐 이로우나 집안의 생기는 썩게 만들어 풍수적 운이 트이는 것을 방해한다. 그 대안으로 등산길에 지표 30센티미터 아래의 산 흙을 파다 화분갈이를 해 준다. 생토가 들어오니 집안에는 생기가 북돋워져 전에 없던 지자기가 새롭게 잡히고, 지기가 쇠약했던 아파트가 안락하고 건강한 공간으로 변하게 된다. 또 다른 방법은 베란다의 양지바른 쪽에 판자를 이용해 화단을 만들고, 그 안을 깨끗한 흙으로 채운다. 그런 후에 야생화나 채소류를 키울 수 있는데 이 역시 흙 속에 내재된 지기로 인해 집안에 결핍된 지자기가 보충되어 길하다. 올해부터는 발코니 확장이 전면적으로 허용된다. 그러면 덤으로 늘어난 거실 공간에 거실정원을 꾸미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기능성 식물을 심으면 전자파를 흡수하고 음이온을 방출하는 효과도 있으며,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집안에 가습기 역할까지 기대할 수 있다.

거실정원을 꾸미면 전자파를 흡수하고 음이온을 방출하는 효과는 물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가습기 역할을 한다.

2 고층의 실내에서도 지자기가 잡힐 수 있도록 화분 또는 화단을 조성한다. **3** 서울의 스카이라인 (서울 도심에 속속 들어서는 초고층 건물들은 대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선도적으로 바꿔가고 있다.) **4** 아파트 단지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아파트는 대략 6층 이하의 층이다.) **5** 비석비토(非石非土), 풍수에서 生氣는 흙에 따라 흐르고 흙에 머문다고 한다. **6** 고층의 실내에서도 지자기가 잡힐 수 있도록 화분 또는 화단을 조성한다. **7** 실내에 생기를 북돋기 위해 실내 정원을 꾸민다.

하지만 주의할 것이 있다. 베란다 화단이든 실내정원이든 그 속에는 반드시 생토를 가득 채워야 결핍된 지자기가 회복되나, 화단과 정원에는 수경시설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옛말에 '집안에 우물이 있으면 흉가다' 라고 하였다. 해가 떠 마당이 따뜻해지면 우물 속의 찬 기운이 대류작용을 일으켜 찬바람이 도는 집이 되고, 그 결과 풍병(風病)이 생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베란다 혹은 거실정원에 수경시설(작은 폭포, 여울)을 설치하면 이것은 집안에 우물을 둔 것과 같아 찬 물기운이 집안을 돌며 식구들의 건강을 해친다. 집안에 물소리가 들리는 수족관을 두는 것도 가습기 역할은 기대되지만 풍수적 운이 트이는 것은 가로 막아 흉하다.

풍수는 현대를 사는 지혜의 원천

초고층 아파트는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주택난 해소와 밀집된 주거 환경을 보다 쾌적하게 개선하는 효과가 커 현실적으로 일반화되었다. 그 결과 저층의 아파트도 재건축 할 때는 법이 허락하는 한 초고층으로 짓고자 추진 중이다. 아직까지 '땅의 기운을 받지 못해 몸이 약해진다' 고 하는 고층 주거가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는 미흡한 편이다. 그렇다고 풍수가 좋은 집에 살아야 복을 받는다는 심리적 효과까지 무시되지는 않는다. 물론 깨끗한 흙을 집안에 두자는 풍수적 제안이 IT강국인 우리에게 비과학적 내지 미신으로 비춰질 수 있다.

하지만 풍수는 흙을 사랑하는 학문이고, 흙의 기운인 지기가 사람의 운명을 바꿔 놓을 수 있다고 말한다. 수용하고, 하지 않는 것은 개개인에게 달려있지만, 풍수를 실천했다고 해서 과연 손해 볼 것은 무엇인가? 기껏해야 등산길에 흙을 퍼 와 화분갈이를 했거나, 베란다에 화단을 조성하는 수고뿐이다. 하지만 풍수가 맞는다면 그 뒤에 따라오는 행운은 당신의 것이지 다른 사람의 것은 아니다. HJ

5

6

7